

**특우 컬럼**

가라! 대양으로

우리 성도 중에 원양어선을 타고 남태평양을 누비며 참치를 잡는 분이 있다. 그는 늘 말한다. “좀 힘들고, 좀 위험하고, 좀 외롭기는 하지만, 자고로 큰 고기를 잡으려면 대양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말이 옳다. 큰 물고기는 연안부두에 살지 않는다. 물이 깊은 곳에 산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왜 도전하지 않느냐, 왜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탄식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해도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했다. 늘 하던 대로 작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라는 것이다. 도전해보라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 밑에 네가 보지 못한, 너를 기다리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두려워서 못 간다. 큰 물고기를 원하지만, 깊은 물은 싫단다. 찬송가 가사를 또 한 번 인용해본다. “깊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맘이 조려서 못 가네~”

그러면 어쩌겠나.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매일 그 밥에 그 반찬으로 살아야지. 도전과 모험 없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가. 대양에 나가지 않고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
라 망망한 바다로~”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깊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깊
이 기도하여 성령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고전2:10).

산이 깊어야 울림이 크고, 바다가 깊어야
보화가 많고, 신앙이 깊어야 하나님을 움직
일 수 있다. 깊은 곳으로 가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문에 간증을 올리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변하지 않는, 아주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배운 대로 한다는 것이다.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을 날마다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이란 점이다.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날마다 본다고 하며, 목사님께 배운 대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거울을 보고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다. 여러 상황이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간증을 하게 된 비결이라면 비결은 극히 단순 명료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자주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뭔가 세상에 타협하기 위한 빌미를 찾고 싶어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다고 간증한다. 아르헨티나(Argentina)의 까를로스(Ricardo Carlos) 목사는 성도 50명이었던 자신의 교회가 세미나 참석 후 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40배 성장했다고 간증하여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매우 놀라게 했었다.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의 올리엘(Omar Olier) 목사 같은 경우는 방언 기도를 배우고 난 뒤 본국으로 돌아가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기도했단다. 오죽하면 그의 사모가 목사님께 남편의 방언 기도 소리에 못 살겠다고 엄살을 부릴 정도였다. 그 결과 올리엘 목사 교회가 아르헨티나 최대 교회로 성장했다고 한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소화해서 설교로도, 목회에도 적용하니 교회가 부흥했다는 간증도 많이 듣는다. 이들의 공통점 역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다.

것 이상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2천 년 전에 오셔서 외친 말씀들이 그대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전파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새로운 이설이 필요한가? 그래서 새로운 별미를 찾듯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중심마저 이탈하고 마는 것이다.

목사님이 40년 목회해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들이 느리다고 답답하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모른다. 나는 느릴지언정 뒤로 물러간 적이 없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방법대로 따라갈 뿐이다.”라고 하신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



아르헨티나 마르델뵤라따 집회 광경(올리엘 목사 주관)

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분명한 생각과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사실 답은 자신이 먼저 잘 안다.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니 세상에서 주는 미끼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목사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에 참석했던 해외 목회자들이 세미나 기간에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기도와 능력 행함을 실제 목회에 적용 실천하여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

우리 교단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역시 목사님을 통해 처음 하나님을 만났거나 이미 신앙이 있던 분들이라도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확신했던 처음의 경험을 늘 기억하고 실천해간다면 예수라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타성에 젖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확신했던 경험보다 문화적 지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잘 박혀있는 믿음의 돌을 굴러온 새로운 돌로 빼내려 한다. 백 퍼센트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느니라”(딤후3:14~15).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히3:14).

목사님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미혹되면 장사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잃지 말라고 외치고 외치시는 것이다. 일기를 통해 매일 나를 돌아보라 강조하시는 것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한은택 목사

2024 교단 목회자 세미나

2월 26일(월)~28일(수)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8:9~12)



무엇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 여러 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헌금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헌금 안 받겠습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헌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뒷감당은 내가 하겠다는 오만을 뽐 겁니다. 성도들은 ‘와~ 멋진 목사님이다’ 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네가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을 막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나를 성도들을 위한답시고 헌금을 안 받은 것인데, 그게 성도들이 받을 복을 막는 꼴이 된 것입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해서 교회에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내라고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것은 성령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복 받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일 성수해라’, 이런 말씀처럼 ‘헌금해라’라고 당당히 가르쳐야 합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면 성도들이 받을 복을 가로막은 죄를 물으실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지 이런저런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사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마구간에서 나신 분 아닙니까(고후8:9)?

그렇다면 왜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심어야 납니다. 농사지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나는 게 있습니까? 나는 게 있다면 쓸모없는 잡초뿐이지요. 심어야 납니다. 더욱이 무엇이고 많이 심어야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저는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밭에만 씨를 뿌리신 것이 아니라 밭두렁에까지 씨를 뿌리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곳에 뿌린 것도 다 결실이 되어 조금이라도 더 거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끼니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부농은 그런 자에게 농토도 빌려주고, 종자도 주고,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서 가게를 일으

켜주었습니다. 나중에 소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수확하고 나서 아까워서, 다 내 것 같아서 선의를 베푼 자를 외면하면 어찌 될까요? 그 농토, 그 종자, 그 기술이 누구에게서 왔는데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종자도 주시고, 농사짓는 법도 가르치시고(마13:3~9), 때를 따라 비를 내리사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신 종자를 심는 것은 우리 일입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 하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후9:10~11).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식이며, 은혜를 아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면 손주 자랑에 정신이 없습니다. 손주가 뭐 사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사줍니다. 그런데요, 그 손주가 어버이날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가져다 가슴에 달아주면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손주가 이거 만들어줬어.” 자랑하며 난리를 떨니다. 종이로 뽀뽀뽀뽀 만든 카네이션이 뭐라고 그리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넘치도록 주시고도 우리가 드리는 종이 카네이션 같은 적은 예물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잠8:17~18).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

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고전4:7). 그런데도 감사를 못합니까?

그렇다면 헌금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예물일까요? 첫째, 미리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후9:5).

헌금시간이 되면 그제야 지갑을 열어 만원짜리를 드릴까, 오천 권을 낼까, 천 원짜리를 낼까 고민한다면 하나님은 이 그것을 예물이라고 받으실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베

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비싼 것이었기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온 진정된 예물이었기에 기뻐하시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왜 야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도 저주를 받았을까요? 인색한 마음이 들어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를 다 노렸다가 일부만 드리니까 기분이 나빠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들이 인색한 마음이 들어 거짓말한 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부만 드리겠다 생각하고 정한 대로 드렸더라면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

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출25:2)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과부가 두 렵돈을 연보케에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눅21:3~4). 과부는 겨우 동전 몇 개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쾌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말1:13).

교회를 다섯 개나 짓고도 저주를 받아 음부에 떠도는 장로를 봤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넘치게 받아야 하건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서입니다. 교회 지었다고 교만했거나, 교회와 주의 종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거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거나, 죄에 속한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말3:7~8). 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1)고 하셨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빌4:18).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빌4:19).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가치를 아는 자가 지배한다!

쌍둥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의 일이다. 설날 아침,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드리면 어김없이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이 건네졌다. 그러면 받자마자 쏘르르 아빠를 찾아왔다. 환전하기 위해서다. 어린 마음에 종이 쪼가리(?)는 영 쓸모없어 보였나 보다. 대신 500원짜리 동전은 두툼해서 뭔가 있어 보이지, 문방구 앞 뽑기 기계에 넣기도 좋지, 이리저리 쓸모가 많았다. 지폐 하나를 받은 나는 동전 한 개를 건네주었었다. 하나 받고 하나 건네주고...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이제 아이들도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감사하는 법이다.

‘연은분리법(鉛銀分離法)’이라는 기술이 있다. 이는 16세기 초 연산군 시기에 조선에서 발명된, 은광석에서 순수 은을 추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당시 중국이나 서양에도 은을 추출하는 기술이 있었다. 하지만 추출하는 과정에서 은이 소실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다. 이에 반해 조선의 기술은 안전했고, 은의 소실도 적어서 매우 선진화된 기술이었다. 은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것이 당시 기축 통화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달러처럼 말이다. 항해술이 발전하여 신대륙이 속속 발견되는 상황에서 나라와 나라와의 교역은 더욱 빈번해졌고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져

갔다. 그러나 정작 조선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은광 개발 억제정책을 펼친 것 때문이다.

반면 1526년, 일본은 조선에서 두 기술자를 몰래 데려와서 연은분리법을 빼내갔다. 이로써 일본은 은 생산량을 늘려 교역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신진 문물과 조총을 들여오더니 급기야 임진왜란을 일으키기에 이른다. 조선의 기술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그 칼을 조선에 돌려댄 것이다. 은의 가치, 그것을 확보할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일본은 이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고 동북아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친 반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조선은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다. 가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다. 가치를 아는 자가 영적 세계를 지배한다.

비싸고 소중할수록 우리는 소중하게 대한다. 반면에 값싸고 대체하기 쉬운 것일수록 가볍게 대한다.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그 값어치를 드러낸다. 당신의 회개는 어떠한가, 당신이 직분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은?

싸구려 회개, 싸구려 직분은 없다.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음만이 있을 뿐이다. 2024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알아.

신현명 목사

:: 성경에세이 ::

습관이 무서운 거야!

여보게!
습관이란 건 참 무서운 거라네.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들어보게.
나는 항상 핸드폰을 재킷이나 와이셔츠 뒷 주머니에 넣고 다녔네. 이것을 본 사람마다 그게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해줬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네. 그런데 어느 날 골프장에서 어느 사람이 허리춤에 핸드폰 케이스를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네. 좋아 보이더군. 그래서 운전해주는 집사에게 그런 것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인터넷에서 사서 나에게 선물로 주었네.

문제는 내가 그 케이스를 허리춤에 차고도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여전히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예전처럼 한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주머니가 없는 남방을 입고 다녔다네.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더니 점차 핸드폰을 허리춤에 차는 습관이 불더군. 지금이야 핸드폰은 늘 케이스에 넣고 다닌다네.

여보게!
‘세 살 적 버릇이 여든 간다’ 했네.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지. 습관은 들이기도 오래 걸리지만, 그 습관을 버리기도 만만치 않다네. 그래서 애초부터 좋은 습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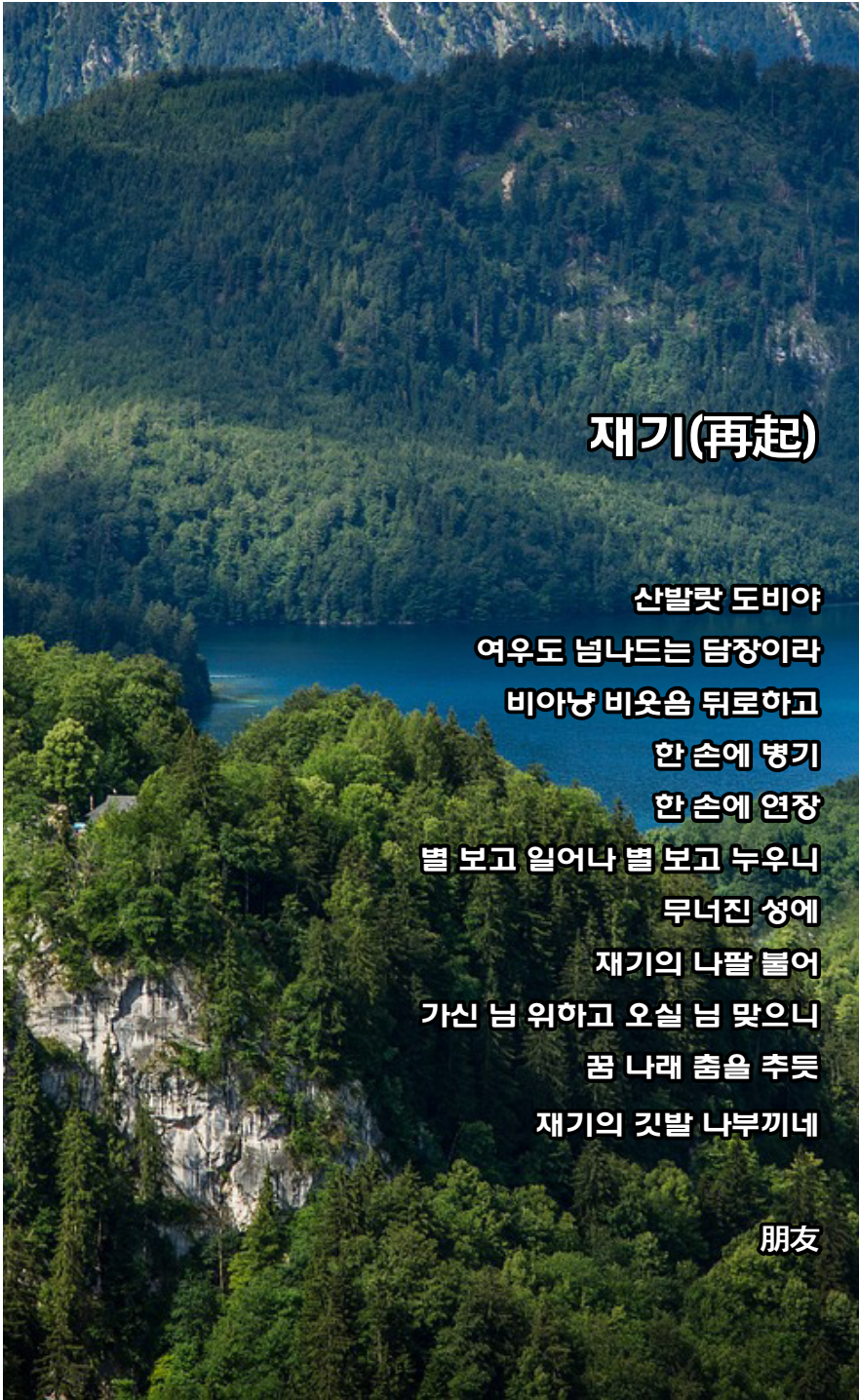
들여야 한다는 거지. 습관은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실패하게도 하는 힘이 있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네. 그러니 애초에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지 생각하게.

그렇다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로 반복에서 태어나는 것이 습관이네. 나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것을 반복했더니 이제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네. 습관의 힘이지. 자넌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나쁜 습관이거든 버리게. 하루아침에 버려지지 않을 걸세. 그러나 반복하면 할 수 있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매일 반복하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일세.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그러지 말게. 120까지 사는 세상 아닌가. 아직 우리 나이는 청춘이야.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반복하고, 책 읽는 것을 반복하고, 일기 쓰는 것을 반복하고, 새로운 취미활동도 반복해보게. 그것이 건강을 가져다주고, 행복도, 성취감도 가져다줄 것일세. 말씀 보는 것과 기도도 반복하게. 그것이 내 세련 아니라 영생까지 가져다준다네.

반복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네.

朋友



:: 생명의 말씀 ::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자녀가 있다. 주의 종 가정이고 목회자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중요한 시기에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아이가 일곱 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를 따라 기도원집회에 온 아이가 기도원 매점에서 팔고 있던 성경책을 보고서는 갑자기 나에게 “아버지, 성경책 사주세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자녀 교육에 대한 나의 고민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졌다.

사실 그때는 만원이 아쉽던 시기인지라 성경책을 선뜻 그냥 사줄 수는 없었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큰아리와 약속하고 성경책을 사주었다. 그랬더니 겨우 일곱 살인 아이가 나와와 약속을 지키고 성경책을 매일 한 장씩 꼭꼭 읽는 것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참 신기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하루에 세 장 이상씩 읽더니 성경 3독을 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할 무렵, 자고 일어

난 큰아이가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아이 말로는 꿀떡이 동글 납작하게 호떡같이 생겼다고 했다. 그 호떡같이 생긴 꿀떡이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가득 쌓여 있었는데, 자기가 그 꿀떡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 꿀떡은 만나였고,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동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든 자녀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성경을 가까이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성장과 변화의 중심에 서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통일대통령이 나오고 통치권자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와 학계와 정계와 재계에서도 머리가 되는 인물들이 배출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장순천 목사

:: 성도간증 ::

:: 빛이 되리라 ::

뺨뚨어진 입이 5일 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예수중심교회 윤영광 성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입이 뺨뚨어진 것을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필사적으로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여 5일 만에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제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입이 왼쪽으로 돌아갔으니 트럼펫을 불 수도 없었고, 음식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상적이었던 입이 돌아갔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저는 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시각장애가 된 것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저를 담당하시던 간호사분의 실수로 인하여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거야 제가 영아 시절이라 인지되지도 않았고, 기억에도 없었는더러 당연한 듯 전혀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이 뺨뚨어진 것은 상황 자체가, 그리고 받아들임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입이 뺨뚨어진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렇기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입이 왼쪽으로 돌아간 이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장 이를 고침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원인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하루 전의 상황부터 되짚어보았습니다. 물론 입이 뺨뚨어진 것은 다 귀신 때문이지요. 즉시 제 속에 들어있던, 입을 뺨뚨어지게 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았습니다. 그것 외에 제가 입이 뺨뚨어지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이 뺨뚨어진 일 만한 진짜 크나큰 결정적인 이유이자 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이불을 깔지 않고 땀바닥에서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차가운 온도에 노출시킨 것이 제 입이 뺨뚨어지게 된 근본적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줄리어드음대 대학원에서 트럼펫 전문 연주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뺨뚨어졌던 장소와 상황 역시 한국이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보편적이지 못합니다. 미국은 자국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입은 돌아갔지요, 유학 중인데 입 돌아간 것 때문에 트럼펫 공부는 못하게 됐지요, 그야말로 저한테는 빨리 왼쪽으로 돌아간 입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절박함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중심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예수중심교회를 어릴 때부터 31년간 다니면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 신앙적으로 양육 받았습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는 법,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도도 시작하여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도 마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저는 총회장 목사님께 배운 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여 제 입을 왼쪽으로 돌아가게 한 더러운 귀신을 먼저 쫓고 나서, 그다음으로는 제 몸을 적절히 관리 못해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자초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선포 해주신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작년만 해도 그렇습다. 작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자’였는데, 제 젊음을 너무 과신함으로써 악한 마귀와 귀신들에게 틈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더워서 창문을 열었으면 일정 시간 후 창문을 닫았어야 했으며, 잠을 잘 때에도 이불을 깔고 베개를 벤 상태에서 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저를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이 뺨뚨어진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였고, 제 입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입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대학원에서 제적당하거든요. 대학원 담당 교수님도 저한테 ‘이 상태에서는 트럼펫을 불지 못하니 당장 그만두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절박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담당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수님, 교수님께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 딱 5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으로 5일 후에 제 돌아간 입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네 미쳤나? 나는 지난 25년간 트럼펫 교수로 일해오면서 자네와 같은 케이스를 상당수 경험했지만, 한번 입이 돌아가면 입이 돌아온다고 해도 후유증으로 인해 트럼펫 연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과서로도 나온 명백한 사실이며, 자네 얘기처럼 단 5일 만에 입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전처럼 왕성하게 트럼펫 연주자로서 활동한 사례는 단 한 개의 케이스도 없었네. 그런데 자네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나 저는 예수중심교회 성도로서,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자로서 한가지 비밀 중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그 교수님 앞에 당당히 외쳤습니다. “교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있는 것도 아니며, 교과서와 논문에이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직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며 어눌한 발음으로 침을 닦는 자그마한 손수건을 입에다 받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저의 제안대로 5일의 말미를 주셨고, 저는 5일 동안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여 드디어 5일 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후유증 하나 없이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입이 뺨뚨어진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그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하면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임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악한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저의 이 간증을 통해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셔서 모두 다 각양각색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 받고, 그 해결 받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 거리가 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광

지혜롭게 받아 누리자!

얼마 전 한 가정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 초등학교 어린 딸이 엄마에게,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사줄게. 내가 선물 줄게.” 하면서 귀찮게 자꾸 밖에 나가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딱히 필요한 것도 없었던 엄마였지만, 딸 성화에 못 이기고 끌려 나가, 결국 어린 딸이 자기 용돈으로 사준 작은 선물을 하나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이 했다는 말이 반전이면서도 참 재밌었다. “내가 엄마 선물 하나 사줬으니까, 엄마도 내 선물 하나 사줘.” 이랬다는 거 아닌가? 꼼짝 못하고 딸이 필요로 하는 걸 사줄 수밖에 없었다는 엄마의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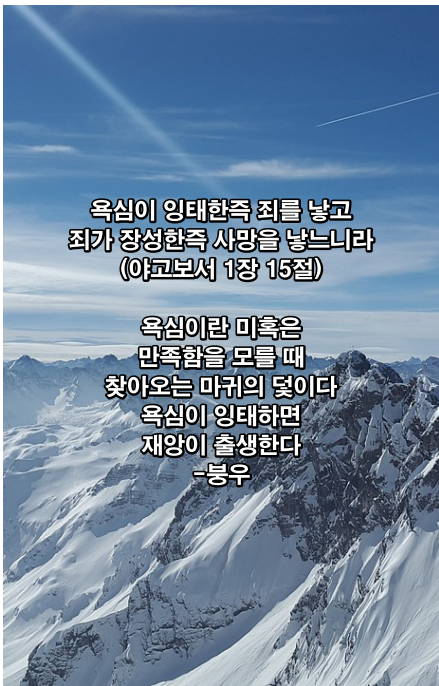
사실 애초에 엄마는 선물이 필요 없었다. 필요한 건 본인이 사서 쓰면 되는 것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딸의 작은 용돈으로 크고 비싼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우리 지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딸의 행동을 기쁨으로 여기는 듯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침노해서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구보다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어린 딸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각자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케 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자녀로서 떳떳이 구하자. 온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라 하라”(민6:24~26).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란 미혹은
만족함을 모를 때
찾아오는 마귀의 덫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재앙이 출생한다
-봉우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